

가을철 돈가 하락기에 강조되는 사항들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클리닉

돈콜레라와 구제역 발생의 여파로 대일 돈육 수출이 중단되었고, 질병 박멸을 위해 그동안 우리 양돈업계는 진통의 연속이었다. 일단 현재 추가적인 발생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기적으로 전염성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때이며, 또한 돈가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어 철저한 방역과 건전한 농장 경영이 매우 강조되는 시점이다.

1. 모돈의 정예화

여름철이 지나면서 사고돈의 비율이 증가하고, 또한 돈가 하락기와 맞물리면서 노산 도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빈번히 접하게 된다. 이러한 모돈들과 연속 사고돈, 저능력 모돈들을 색출하여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도태를 시켜 모돈을 정예화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번식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2. 후보돈 확보는 계획대로 한다.

보통 불황기에는 모돈 도태율이 낮아지고,

후보돈 입식률이 저조해진다. 또한 후보돈을 보충하더라도 종돈장에서 F1구입이 아니라 자가 비육선발 비율을 높여 농장의 유전 능력을 낮추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번식 생산성과 비육돈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는 꾸준히 F1후보돈을 입식해야 한다. 오히려 이 시기에 좋은 후보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3. 적극적인 사료비 절감이 중요하다.

양돈 생산비중 60~70%를 차지하는 것이

▼양돈 생산비중 60~70%를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이므로 이를 통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쪽이 매우 크다.





▲9월이 되면 밤·낮 일교차가 10°C 이상 벌어져 돼지의 항병력이 저하되어 질병감염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분만사와 이유자돈사는 일교차 5도 이내, 기타 돈사는 10°C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사료비이므로 이를 통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폭이 매우 크다.

- 가급적 80~90일령 이내에서 육성돈 사료로 전환 급여한다.

말기에는 비육 후기 사료를 급여한다. → 시설이나 관리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사료급여체계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 농장에 맞는 품질의 사료를 선택한다. 고가(高價)의 사료가 무조건 모든 농장에 잘 맞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사료 허실 요인을 색출 제거한다. (사료통 관리, 구서, 변패방지 등)

- 사육환경 개선 및 만성 소모성 질병의 예방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여름철, 겨울철을 대비하여 돈사 단열을 철저히 한다.

- 연중 지속적으로 사료급여 상태가 효율적인가를 점검한다. (사양시험 또는 전산관리를 통해 점검한다)

- 사료 거래를 공동 구매 방식과 현금 결제 조건으로 전환한다.

- 그 외에 종돈 개량으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번식돈돈 확보와 인공수정 비율 증가를 통해 사료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출하시에도 개량정도가 낮은 농장의 돼지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4. 환경관리 및 사양관리

가. 온도관리

- 9월이 되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돼지의 항병력이 저하되어 질병 감염이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각 성장 단계별 적정온도를 기준으로 최고, 최저온도의 차가 10도 이내의 범위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 각 돈사별로 최고, 최저온도계를 필히 비치해 두고 1일 3회 이상 확인한다.

- 분만사와 이유자돈사는 일교차 5도 이내, 기타 돈사는 일교차 10도 이내를 유지한다.

- 섯바람에 의한 온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출입문, 원치커텐 등의 틈새 밀봉, 섯바람이 많은 출입구 부근의 돈방 칸막이는 밀폐시킨다.)

나. 습도관리

- 환절기 습도는 6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호흡기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돈사내 습도는 60%~70% 사이로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준다.

- 소독회수를 늘려주고, 돈사내 통로에 물을 뿌려준다.(특히 야간에 소독약을 희석한 물을 뿌려주면 좋다)

다. 환기

- 습도저하, 가스와 먼지의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및 호흡기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 각 돈사별로 암모니아 가스가 최대 15ppm을 넘지 않도록 온, 습도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라. 기타 사양관리

- 특히 환절기에 돈방소독이 안될 경우 호흡기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빈 돈방의 수세, 소독 후 돼지를 입식한다.

- 밀사를 하지 않으며, 가급적 올인-아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항생제 클리닝 전에는 양돈전문 수의사의 상담을 통해 약제선정과 투약방법, 투약기간 등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5. 방역관리 강화

예방위주의 관리체제가 꾸준히 유지되도록 한다.

가. 백신 프로그램

- 모돈과 웅돈에게 접종하는 계절 백신의 접종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다.(돈단독, 파보백신 등) 특히 여름을 지나면서 후보돈 교배가 많았던 농장은 TGE와 PED백신 접종을 더욱 철저히 한다.

- 접종하는 백신 프로그램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나. 구충

- 여름철 청초급여 및 방목 등으로 기생충 감염률이 높아져 있다.

- 내·외부 구충을 동시에 실시한다.

- 모돈 및 웅돈의 내부 구충을 계절별로 실시할 때는 구충을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한다.

다. 항생제 클리닝

- 가급적 문제되는 호흡기 질병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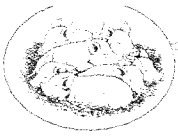
- 항생제 클리닝 전에 양돈 전문 수의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상담을 통해 약제선정과 투약방법, 투약기간 등을 사전에 결정해 놓는다.)

- 번식돈 전체와 육성돈(출하 1개월 전의 비육돈은 제외)에 약제 투약.

- 음수투약 시설을 설치한다.(질병발생시 사료섭취량이 저하되므로 사료첨가 보다는 음수투약이 효과가 탁월함)

라. 소독

- 1일 1회 분무소독을 일상관리로 정착시킨다.



- 소독약은 2~3종류의 다른 제제를 선정하여 교대로 사용한다.
- 소독약은 희석 배율을 준수한다.
- 소독을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소독기를 각 돈사별로 설치해 놓는다.

마. 차단방역

- 농장 진입로 및 출하대 부근에 생석회 도포
- 농장 진입로는 단일화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출하차량 및 돈분 수거차량의 출입시 수세 및 소독 상태를 확인하고, 한번 더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출입인원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한다.(장화 및 방역복 제공, 소독 및 샤워 등)
- 출하차량이 농장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출하대는 가급적 농장 울타리에 설치한다.
- 외부 장비의 출입시에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 발판소독 → 발판 소독약은 자주 교체한다.
- 농장내 차량 및 기구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외부에서의 돼지 구입은 후보 종돈 말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청정농장에서 구입)
- 도입돈은 체표소독 실시 후 돈사로 이동시키고, 최소 3주간 격리 사육한다.
- 외부 양돈장 출입은 가급적 삼간다.
- 중고 기자재 구입은 가급적 자제한다.
- 쥐잡기와 더불어 농장외부의 동물 출입을 차단한다.
- 정기적인 혈청검사로 돈군의 상태를 감시한다.



▲농장내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출하차량 및 돈분 수거차량의 출입시 수세 소독 상태를 확인하고, 한번 더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출입인원에 대해 방역조치를 한다.

6. 경영분석을 잘 활용하자.

가. 번식돈 관리 기록

자돈 생산과 관련된 번식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번식부분에서의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개선시키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나. 비육돈 관리

- 비육돈의 도폐사 현황을 기록함으로써 어느 일령대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폐사 손실이 많은지 파악이 용이하다. 폐사 손실은 사료비 부담을 크게 높이게 된다.

- 비육돈 생산에 직접 관계되는 사료비, 약품비, 그리고 출하내역을 기록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료의 kg당 평균단가는 물론이고 비육돈 출하 kg당 사료비와 약품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이러한 기록을 매월 분석해 보면 현재의 사료비가 적정 수준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양돈**